yuseongnews

더 좋은 유성



봄꽃소식

봄 빛 따라 걷는 유성의 꽃길

진잠향교 춘계석전대제



온쉼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꿈꾸며



2026
제243호
4



06



04



16

yuseongnews

더 좋은 유성

4

2026

제243호

「더 좋은 유성」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팩스, 이메일을 이용해서 보내주세요
전화 042.611.2743
팩스 042.611.2091
E-mail newworld07@korea.kr
Homepage www.yuseongnews.co.kr

통권 제243호 2026년 4월 1일 발행
발행처 유성구
발행인 유성구청장
홈페이지 www.yuseongnews.co.kr
기획/편집 유성구 홍보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편집인 홍보과장
편집위원 임재만, 이훈희, 우상훈
사진 박기현·김중환
디자인 동아인쇄기획
인쇄 문원미디어







CONTENTS

04 유성산책③ 진잠향교

06 특집 우리 동네의 거실은 어디에?

10 스타트업 탐방 (주)에이브람스, 산업 현장의 공기를 바꾸는 기업

12 어궁동을 가다② 높은 외국인 비율과 연구·교육 중심 산업 구조

14 의회소식

16 화보 봄 빛 따라 걷는 유성의 꽃길

18 정책소식 '유성형 공공일자리' 챙기세요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다양

20 우리 동 소식

22 사람들 온쉼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꿈꾸며

23 언제나 청춘 '유성이 합창단'에서 보람을 찾다

24 전문가 기고 의학칼럼 - 나는 왜 자꾸 긴장할까?

25 칼럼 아이가 "아프다"고 말할 때 부모가 해야 할 말

26 구정종합

28 생활문화소식

30 알림 유성5일장은 계속됩니다



표지 설명 : 진잠향교 춘계석전대제를 위해 향교 관계자들이 내삼문을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이성희(중도일보)



진잠향교

전통문화의 꽃 진잠향교 춘계석전대제



봄 바람이 제법 따스한 3월 24일 오전 진잠향교에는 일찍부터 춘계석전대제를 올리기 위해 분주하다. 석전대제(釋奠大祭)는 옛 유교 전통에서 공자와 유교 성현들에게 지내는 가장 큰 제사 의식을 말하는데, 보통 봄 가을 두번 올린다.

진잠향교는 조선 태종 5년(1405년)에 세운 목조 기와 건물이고, 그 후 몇 차례 고쳤으며, 명륜당과 동·서 양제와 대성전을 다 갖추고 있다. 《유성의 역사와 지명유래》에는 "처음 진잠향교가 세워진 자리는 지금 서대전 인터체인지가 자리한 반향골이었다. 그 후 언제 교촌동에 옮겨왔는지 확실한 연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이곳에 세워진 향교의 건물도 여러 차례 중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낮은 야산을 배경으로 하여 입구 쪽으로 면하고 외 3칸 소슬삼문형으로 지었다."고 기록돼 있다.





진잠향교 외삼문에 들어서자 안쪽의 양옆에 동서양재가 서로 마주보게 배치돼 있고, 정면 중앙에는 학문을 가르치던 명륜당이 있다. 명륜당의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2칸인데, 정면 3칸 중 좌측 2칸에는 우물마루로 된 통간의 넓은 대청을 들여서 강학공간을 만들고 우측 1칸에는 온돌방을 들였다.







그리고 명륜당 뒤로 내삼문을 지나 들어가면 높은 대지에 대성전이 위치하고 있다. 대성전은 중국의 5성(공자, 안자, 증자, 자사, 맹자) 6현(주돈이, 정호, 정이, 소옹, 장재, 주희)과 우리나라의 18현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봄·가을 석전대제가 올려지는 곳이다.

집례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진행되는 대제는 약 1시간 정도 진행됐고, 주민들도 함께해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글 / **임재만**



우리 동네의 거실은 어디에?

'마을 커뮤니티 공간' 20개소 안내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아시나요? 시간 날 때 찾아가서 공부하고, 대화하고, 차도 한잔 마시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공간이다. 이런 공간이 우리 구에는 모두 20곳이 있다.

마을 커뮤니티 공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구에서 운영하는 '민관협력형(공공형)' 공간. 이곳에서는 공유 주방, 북카페, 소통 라운지 등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쉼터의 역할을 한다. 반면 주민들이 직접 운영의 주체가 되어 이끌어가는 '마을 자립형' 공간도 있다. 이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이나 마을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아이들을 위한 키즈카페, 취미 교실, 주민 카페 등 각 마을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민관협력형

꿈샘

주민 소통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형 공유공간으로 작은내수변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만만(회의실), 해밀(프로그램실), 마중(좌식 공간), 공용공간이 있으며, 화이트보드, 교육용 책상, 의자, 도서 및 놀이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운영시간은 월~금 09:30부터 17:30까지다.

☎ 042-826-6588

위치 : 봉명서로20번길 10, 작은내수변공원 내

이음



활동공간이 필요한 주민이나 마을공동체를 위해 조성된 공공형 공유공간으로 신성마을작은도서관 2층에 자리 잡고 있다. 꿈 다락(프로그램실), 별 다락(좌식 공간), 가치YOU(공용공간)로 구성되어 있으며,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전면 거울, 매트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운영시간은 월~금 09:30부터 17:30까지이며, 토요일은 09:00~18:00에 운영한다.

☎ 042-863-3663 / 위치 : 신성남로 27, 2층

장대오장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제작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장대동의 정겨운 마을 분위기를 담고 있다. 장대 B 구역 재개발로 인하여 현재 위치에서는 4월 30일까지만 운영하고 6월 초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 예정이다. 프로그램실, 스튜디오, 공용공간 등이 있으며, 빔프로젝터 회의 테이블, 앰프 등을 갖추고 있다. 운영시간은 월~금 09:30부터 17:30까지다.

☎ 042-822-3693 / 위치 : 유성대로730번길 51, 3층
(※ '26.6월 중 유성대로654번길 133 지하 1층으로 이전 예정)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마을 활동가와 주민들의 협업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어은동 안녕마을 인근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 배움(프로그램실), 나눔(공유 주방), 마중(공용공간)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빔프로젝터, 음향 장비, 정수기, 냉장고, 오븐 등을 완비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월~금 09:00부터 18:00까지다.
☎ 042-861-3502 / 위치 : 어은로 51번길 41

송강전통시장 고객 쉼터

시장 방문객과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다목적 소통 공간으로 전통 시장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돕고 있다. 다목적실과 고객 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TV, 컴퓨터 등 회의 및 휴게 시설을 갖추고 있다. 운영시간은 9:00부터 18:00까지다.
☎ 042-932-3113 (이용 전 전화 예약 필요)
위치 : 구즉로 74-15, 2층

유성푸드통합 지원센터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나누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수통골 인근의 쾌적한 환경 속에 자리하고 있다. 주민들이 함께 요리할 수 있는 공유 주방 시설을 갖추고 있다. 운영시간은 프로그램별로 다르다.
☎ 042-710-9779 / 위치 : 수통골로 55번길 190, 3층

용산마루

전시와 휴식이 어우러진 주민 문화 공간으로 용산도서관 내에 위치하여 독서와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오픈 라운지와 전시 공간이 있으며, 전시용 레일, 휴게 테이블과 함께 빔프로젝터, 앰프, 마이크 등을 갖추고 있다. 운영시간은 화~토 10:00부터 18:00까지다.
☎ 042-611-2542
위치 : 배울1로 118, 용산도서관 2층

전민복합문화센터 북카페

독서와 소모임을 즐길 수 있는 열린 쉼터로 전민동 주민들의 세대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북카페 공간을 통해 독서 소모임 등에 적합한 최대 25명 수용 규모의 시설을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화~일 09:00부터 21:00까지다.
☎ 042-389-0354 / 위치 : 문지로299번길 18, 1층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청년과 주민이 교류하는 소통의 장으로 1~2층은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3~4층은 유성구 청년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커뮤니티센터 1층은 주민 소통 라운지, 2층에는 커뮤니티 실이 있으며, 음향 장비, 빔프로젝터, 전면 거울, 좌식 테이블 등을 갖추고 있다. 운영시간은 화~토 10:00부터 19:00까지다.
☎ 042-611-2225 / 위치 : 농대로15번길 20

구즉아름채

유성구의 20번째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람과 사람을 아름답게 이어주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 구즉문화센터 내에서 주민들의 소통과 휴식을 지원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화~토 09:30부터 17:30까지다.
☎ 042-611-2225
위치 : 와룡로 149, 구즉문화센터 2층



글 / 임재만

마을 자립형

공간별 이용 요일 및 시간상이 (개별 문의 필요)



진잠스토리

주민들이 모여 다양한 배움을 나누는 프로그램 특화 공간으로 교육 및 소모임을 위한 프로그램실 시설을 갖추고 있다.

☎ 042-542-7779

위치 : 진잠로 140번길 5-15, 202호

마을거실

주민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주민 자립형 공간으로 집 앞 거실처럼 친근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회의와 모임을 위한 커뮤니티실 시설을 갖추고 있다.

☎ 042-825-7005

위치 : 학하남로 10, 오투그란데미학아파트 내

꿈터

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24인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등을 갖추고 있다.

☎ 042-710-1993 (이용 4일 전까지 문의 필요)

위치 : 상대복용로29번길 52,
대전아이파크시티 1단지 내



어울림터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여가를 즐기는 마을 활동공간으로 열매마을 단지 내 주민 화합의 중심지다.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생활 스포츠 등에 적합한 전면 거울과 마루 공간을 갖추고 있다.

☎ 042-477-2308

위치 : 은구비남로 34, 열매마을 8단지 아파트 내

송림마당

주민들의 건강한 취미 생활과 소통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소규모 모임에 적합한 프로그램실 시설 및 탁구대가 갖춰져 있다.

☎ 042-824-7601

위치 : 노은로426번길 15, 송림마을 6단지 아파트 내

마실방

이웃들이 사랑방처럼 드나들며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신성동 주민들의 소박한 소통 공간이다. 주민 회의와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실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용문의 : https://band.us/band/11483895

위치 : 신성로 72번길 46, B1



호반아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부모들이 소통하는 마을 자립형 키즈카페로 안전한 놀이 시설을 갖춘 키즈카페 형태의 공간이다.

☎ 042-825-0911

위치 : 도안동로 523, 도안2블럭베르디움 내



열매쉼터

바쁜 일상 속 주민들에게 휴식과 배움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지족동 주민들의 평온한 휴식처 역할을 한다. 깨끗하고 쾌적한 프로그램실 시설을 갖추고 있다.

☎ 042-477-5586

위치 : 은구비로 31, 열매마을 5단지 아파트 내

아이스퀘어

마을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교육과 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실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15인이 이용할 수 있다.

☎ 042-710-1841

위치 : 상대복용로 29번길 51,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 내



트리풀카페

마을자립형 주민 카페 공간으로 트리풀시티 단지 내에서 차 한 잔의 여유와 이웃의 정을 나눈다.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아늑한 카페 시설을 갖추고 있다.

☎ 042-826-0340

위치 : 상대남로 26, 트리풀시티 9단지 아파트 내



마을 커뮤니티 공간 이용 TIP

- **대관 제한** : 정치·종교 활동, 영리 목적, 개인 친목 모임(동창회, 송년회 등) 및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활동은 대관이 제한되며, 공간별로 최소 이용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책임 이용 :** 시설물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시설 파손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대관인 본인에게 있다. (파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필수)
- **쾌적한 환경 :** 공간 내 주류 및 음식물 반입과 취식은 금지된다. 다음 이용자를 위해 사용한 비품은 깨끗하게 원상복구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직접 수거해 가야 한다.
- **노쇼(No-Show) 주의 :** 대관 승인 후 취소 절차 없이 사용하지 않은 이력이 있거나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할 경우, 향후 대관 신청이 제한되거나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주)에이브람스
산업 현장의 공기를 바꾸는 기업



손창호 대표



<편집자주>
㈜에이브람스는 2023년 8월, 한국기계연구원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연구소 기업이다. 사명 'Abrahms'에는 "Air를 브람스의 음악처럼 아름답게 변화시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에이브람스는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 미세먼지, 유해가스 저감 기술을 통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으며, 산업 현장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에이브람스는 어떤 회사이며, 왜 설립됐나?

에이브람스는 한국기계연구원의 대기오염 저감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대기오염 문제를 직접 확인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 특히 한국기계연구원의 자기재생 VOCs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 환경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해결하려는 환경·산업 현장의 문제는 무엇인가?

에이브람스가 주력으로 다루는 분야는 VOCs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이다. 톨루엔, 폼알데히드, 벤젠과 같은 VOCs는 국내에서 많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자 미세먼지의 전구물질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존 방지시설은 규모가 크고 유지비가 높아 중소 사업장에서 적용이 쉽지 않으며, 농도와 유량 변화가 큰 공정에는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에이브람스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현장 특성에 맞는 경제적이고 유연한 대기오염 처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주력 사업과 대표 기술은 무엇인가?

에이브람스는 산업 현장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설계, 제작, 시공, 운영을 아우르는 통합 환경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자기재생 VOCs 처리장치 개발을 비롯해 국소배기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시공, 집진 설비, 열산화 설비, 흡착 설비, 습식 처리 설비, 반도체 공정용 PFCs 처리장치 등이다.
대표 기술은 자기재생 VOCs 처리장치와 Plasma Scrubber다. 자기재생 VOCs 처리장치는 흡착-재

생-산화-재흡착의 순환 공정을 통해 VOCs와 악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중소형 공정에 적합한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 Plasma Scrubber는 플라즈마와 연소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난분해성 온실가스를 고효율로 처리하는 기술이다.



에이브람스 기술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에이브람스 기술의 가장 큰 차별점은 '자기재생(Self-Regeneration)' 개념이다. 기존 흡착 방식이 흡착제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구조라면, 에이브람스의 기술은 흡착-재생-산화 공정을 자동 순환하도록 설계돼 유지관리 부담을 줄였다. 또한 농도와 유량 변화가 있는 VOCs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컴팩트한 설계로 협소한 공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 같은 강점은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 절감은 물론 장기적인 안정 운전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높여준다.

기술 개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앞으로의 방향은?

에이브람스는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기술 개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운영이 어렵거나 비용 부담이 크면 지속적으로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 효율성, 사용 편의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는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과 탄소중립 대응 기술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에이브람스는 대기환경 문제 해결을 넘어 에너지 효율과 탄소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는 글로벌 환경기술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우리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에이브람스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abrahmsglobal23







글 / **이훈희**

어궁동 어디까지 가봤니?



대학·연구소 품은 어궁동, 높은 외국인 비율과 연구·교육 중심 산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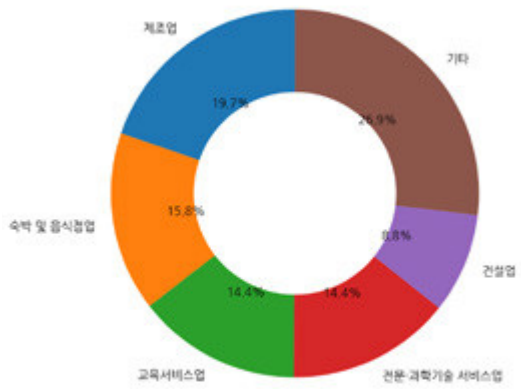
유성구 어은동·궁동 일대, 이른바 '어궁동'은 대학과 연구소, 외국인 커뮤니티, 창업 생태계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충남대와 KAIST, 대덕연구단지와 인접한 이곳은 오래전부터 학생과 연구원, 외국인의 유입이 활발했던 곳이다. 행정구역상 어은동과 궁동은 온천2동에 속하며, 온천2동에는 장대동, 구성동, 죽동 일부도 포함된다.

2026년 2월 기준 유성구 등록 외국인은 8,962명이며, 이 가운데 온천2동 등록 외국인은 4,556명으로 가장 많다. 온천2동 전체 인구 40,581명 가운데 외국인 비율은 약 11.2%로, 유성구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실제 체류하거나 활동하는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어궁동은 유성구 안에서도 국제적 생활권의 성격이 비교적 뚜렷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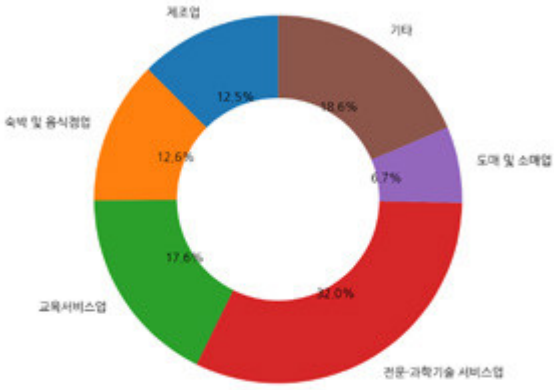
유성구 외국인 등록 인구

행정동	외국인 등록 인구	비교
진잠동	221	
학하동	508	
상대동	84	
온천1동	507	
온천2동	**4,556**	
노은1동	138	
노은2동	120	
노은3동	136	
신성동	1,289	
전민동	234	
구즉동	526	
관평동	482	
원신흥동	161	

대전시 외국인 취업활동 상위 산업



유성구 외국인 취업활동 상위 산업



자료 참조: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산업분류별 취업활동 유성구 외국인 현황

이러한 특성은 산업 구조에서도 확인된다. 외국인 취업활동 상위 산업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유성구는 다른 자치구와 달리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비중이 32%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교육서비스업 17.6%, 이후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시 전체는 제조업 19.7%가 가장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순으로 조사됐다. 즉, 유성구, 특히 어궁동은 일반적인 산업도시형 외국인 분포와 달리 연구·교육 중심의 외국인 활동이 두드러지는 지역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외국인 음식점이 만든 문화적 다양성

어궁동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이다. 대학가 특유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연구개발 중심 지역의 전문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거리 곳곳에는 각국의 식문화를 담은 음식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원,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일상 속에서 이들 공간은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문화 교류의 접점 역할을 해왔다.



이 같은 환경은 어궁동만의 로컬문화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고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머무르면서 지역 상권의 수요도 외국 음식점, 해외 식재료점, 카페, 생활서비스 등으로 다변화되고, 거리의 분위기 역시 보다 국제적이고 복합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창업생태계와 맞물리는 어궁동의 변화

어궁동은 최근 대학·연구 인프라와 창업생태계가 결합한 지역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유성구가 이 일대를 충남대와 KAIST 사이의 정주형 창업거점으로 육성하면서,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창업 지원 공간, 청년 창업가들이 모이는 곳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궁동은 단순한 대학가를 넘어 테크 창업과 로컬문화가 공존하는 실험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외국인 유입은 어궁동 창업환경의 중요한 동력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문화적·전문적 배경을 지닌 인재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새로운 아이디어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성구는 외국인도 창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을 지원하고, 우수기업 유치와 창업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과 초기·예비창업가 지원도 함께 추진하며 지역의 창업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글 / **이훈희**

제9대 유성구의회 마지막 임시회 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구정질문을 비롯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김동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 질문을 통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함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초고령 사회의 대응 방향(이희래 윤리특별위원장)에 대한 5분 발언과 △학하동 경로당·도서관 필요 및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김미희 의원) △청소년 정책 기반 강화 및 방과후아카데미 인력 안정화 방안(송재만 의원) △유성구 주요 정책 미래 경쟁력 강화 및 실행전략 점검(인미동 의원) △궁동지구 내 보행자 도로 개선방안 정비 촉구(최옥술 의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방안(한형신 의원)에 대한 구정질문이 이어졌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 재검토 촉구 결의안(양명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대전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이희래 윤리특별위원장)과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 사업에 따른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상생협의체 구성 촉구(이명숙 의회운영위원장) △지역 미래를 반영한 공공건축물 건립 방향 제언(송재만 의원) △유성구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체주택 조성 촉구(한형신 의원)에 대한 5분발언 등이 이어졌다.

제9대 후반기 의장단·위원장 공로패 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제9대 후반기 마지막 회기를 마치며 의회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번 공로패는 김동수 의장과 여성용 부의장을 비롯해 이명숙 의회운영위원장,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 양명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희래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공로패에 대해 유성구의회는 제9대 후반기 의회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책임감 있는 리더십과 헌신적인 의정활동 덕분이라며 그 의미를 밝혔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 위촉... 예산 집행 전반 검사

유성구의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유성구의회 여성용·최옥술 의원을 비롯해 세무사, 회계사, 대전시 前 공직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2026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유성구의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예산 집행 전반을 검사할 예정이다.

봄 빛 따라 걷는 유성의 꽃길

봄이 오면 도시는 가장 먼저 색으로 계절을 알린다. 겨우내 조용하던 나무에 새잎이 돋고, 거리 곳곳에는 꽃이 피어나며 풍경을 바꿔 놓는다. 유성구에도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꽃 명소가 곳곳에 숨어 있다. 따뜻한 햇살과 함께 걷기 좋은 4월, 유성의 대표적인 봄꽃길을 따라가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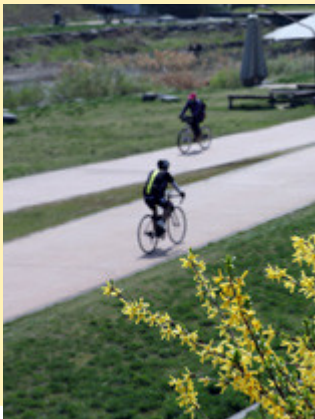


탄동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탄동천 벚꽃길이다. 화폐박물관 인근으로 이어지는 이 구간은 유성의 대표 벚꽃 명소로 꼽힌다. 산책로 위를 가득 메운 벚꽃 아래를 걷다 보면 마치 한 장면의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든다. 과학관에서 탄동천, 카이스트로 이어지는 길은 걷기에도 좋고 자전거를 타며 둘러보기에도 제격이다.

갑천

갑천에서는 또 다른 봄의 빛깔을 만날 수 있다. 둔치를 따라 길게 이어진 개나리꽃은 강변 풍경에 화사함을 더한다. 노란 꽃들이 길을 따라 줄지어 피어난 모습은 봄날의 생동감을 한층 더 크게 전해준다. 일상 속에서 자주 보는 꽃이라도 갑천에서 만나는 개나리는 유독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천변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인근 갑천변도 봄이면 많은 이들이 찾는 장소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흩날리는 벚꽃잎은 마치 하얀 눈이 내리는 듯한 풍경을 만든다. 여기에 잔잔히 흐르는 갑천의 물길이 어우러져 한층 운치 있는 봄 풍경을 완성한다. 주변에 쉬어갈 공간도 마련돼 있어 돗자리를 펴고 여유롭게 꽃놀이를 즐기기에도 좋다.





유성구청소년수련관 하천길

유성구청소년수련관 뒤편 하천길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이곳은 벚꽃과 개나리를 함께 감상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산책로와 자전거길을 따라 이어지는 봄꽃은 도심 속에서도 계절의 아름다움을 가까이 느끼게 한다. 다양한 색의 꽃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걷는 발걸음마저 가볍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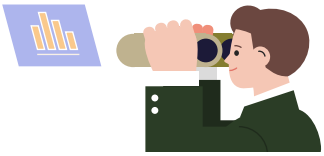




이 밖에도 충남대학교 기숙사 방향, 유림공원, 유성구청에서 카이스트로 이어지는 길 등 유성 곳곳에는 봄꽃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많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가까운 일상 속에서 충분히 봄을 만날 수 있는 계절, 유성의 꽃길에서 봄날의 여유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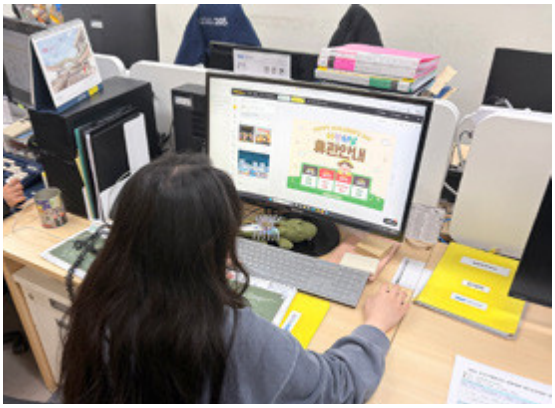
글 / **이훈희**

‘유성형 공공일자리’ 챙기세요



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성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도부터 시작, 매년 일부사업 변경·확대 추진) 2026년도 유성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기존의 정부주도형 공공일자리 사업과 차별화한 지역 맞춤형 모델로, 디지털·돌봄·마을 등 3개 유형 7개 사업에 총 77명이 참여한다.

디지털 분야



디지털 분야에서는 공공시설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는 ‘미래세대 디지털 청년인턴’과 공공데이터 사전조사 보조·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공공 빅데이터 청년인턴십’을 운영한다. 3월부터 시작된 디지털 분야사업을 통해 관내 공공시설에서 청년인턴들의 디지털업무능력을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으로 행정서비스를 높이고, 청년들의 취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돌봄 분야

돌봄 분야에서는 아동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에 2월부터 근무를 진행중이며, 3월부터 아동친화공간에 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와 돌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4월부터는 통합돌봄인력 지원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을 분야

올해는 마을 분야에 신규로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조사·관리’ 사업을 신설했다. 2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 시설 설치 의무 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자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활용 정거장 유지관리사업을 통해 도심지 미관을 개선하고 깨끗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3개 분야에 7개 사업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다양

공공근로사업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분야에서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자들은 불법광고물 정비와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등 환경 정비 활동을 비롯해 총 8개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모집분야는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다문화커뮤니티센터, 여성커뮤니티센터 등 4개의 지역주민과 밀접한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자세한 모집분야는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아울러 유성구는 구직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4개 동(학하, 원신흥, 노은3동, 관평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구인·구직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 '찾아가는 일자리 이동상담소'를 마련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많은 주민이 일자리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 이동상담소는 3월 31일 유성온천역을 시작으로 4월 21일 반석역('26년도 확대), 5월 19일 유성온천역, 10월 13일 유성온천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유성구에서 일자리를 찾으시나요?

*유성구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일자리" 분야 활용
*일자리지원센터 문의 : 2월 ~ 11월 / 월 ~ 금 / 설치장소 및 상황에 따라 변경 운영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장소	개시일	운영시간	전화번호
유성구청 일자리지원센터 (1층 민원여권과 내)	2026. 2. 9.(월)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611-2139 611-2827
학하동행정복지센터	2026. 3. 16.(월)	13:00 ~ 17:00	611-6079
원신흥동행정복지센터	2026. 3. 3.(화)	13:00 ~ 17:00	611-6935
노은3동행정복지센터	2026. 3. 3.(화)	09:00 ~ 13:00	611-6967
관평동행정복지센터	2026. 3. 23(월)	09:00 ~ 13:00	611-6998





진잠동

대정2통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
- 기간: 4월 ~ 7월
- 내용: 단열, 창호 및 냉·난방기 교체, 보일러 교체 등
- 위치: 대정동 산54-27
- 문의: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관리팀 ☎042-611-2398

성북동 산림욕장 시설정비
- 기간: 1월 ~ 12월
- 내용: 노후 화장실 철거 후 신축
- 위치: 성북동 산72-3번지 일원
- 문의: 녹지산림과 숲체험팀 ☎042-611-2671

학하동

침수취약시설 대상 자동차단시설 설치
- 기간: 1월 ~ 7월
- 내용: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 위치: 학하동 685-149 및 685-154 일원
- 문의: 재난안전과 하천팀 ☎042-611-2211

주요하천 환경정비
- 기간: 1월 ~ 12월
- 내용: 계절꽃 파종
- 위치: 계산동 757(화산천)
- 문의: 재난안전과 하천팀 ☎042-611-2481

상대동

정원도시 유성 조성
- 기간: ~ 2027년
- 내용: 정원조성
- 위치: 상대동 593번지 일원
- 문의: 녹지산림과 도시숲팀 ☎042-611-2682



원신흥동

작은내수변공원 맨발걷기길 조성
- 기간: 4월 ~ 6월 (예정)
- 내용: 맨발걷기길 조성, 수로관, 편의시설 설치 등
- 위치: 작은내수변공원
- 문의: 공원과 공원관리팀 ☎042-611-2732

주요하천 환경정비
- 기간: 1월 ~ 12월
- 내용: 계절꽃 파종
- 위치: 용계교~용반교(진잠천)
- 문의: 재난안전과 하천팀 ☎042-611-2481

온천1동

노후 가로등 조도개선공사
- 기간: 1월 ~ 8월
- 내용: 노후 가로등 교체 등 1식
- 위치: 미왕물류~복용삼거리(유성대로 일원)
- 문의: 건설과 전기팀 ☎042-611-2507

현충원로 가로등주 설치공사
- 기간: ~ 6월
- 내용: 가로등 교체 등 1식
- 위치: 대전어린이천문대~구암교사거리
- 문의: 건설과 전기팀 ☎042-611-2508

온천2동

2026년 녹지대 생태환경 개선사업
- 기간: 4월 ~ 6월(예정)
- 내용: 대형목 밀도조절 및 전정
- 위치: 장대동 318-2(완충녹지) 일원
- 문의: 공원과 공원관리팀 ☎042-611-2803

주요하천 환경정비
- 기간: 1월 ~ 12월
- 내용: 계절꽃 파종
- 위치: 유림공원 일원(유성천)
- 문의: 재난안전과 하천팀 ☎042-611-2481



노은1동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주민참여예산)
- 기간: 4월 ~ 6월(예정)
- 내용: 맨발걷기길, 연식의자, 수목 식재 등
- 위치: 노은동 519(완충녹지)
- 문의: 건설과 공원관리팀 ☎042-611-2469

노은2동

현충원로(덕명네거리~공주시계) 가로등주 설치
- 기간: ~6월
- 내용: 가로등 교체 등 1식
- 위치: 대전어린이천문대~구암교사거리
- 문의: 건설과 전기팀 ☎042-611-2508

노은3동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 기간: 7월 ~ 12월
- 내용: 도로변 띠녹지 조성, 수목 보식 및 정비 등
- 위치: 새미래초등학교, 새미래중학교 일원
- 문의: 녹지산림과 도시숲팀 ☎042-611-2721

주요하천 환경정비
- 기간: 1월 ~ 12월
- 내용: 초화 관목 식재
- 위치: 지족동 1087 일원
- 문의: 재난안전과 하천팀 ☎042-611-2481

관평동

관평동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소로1-관평2호선)
- 기간: ~ 2028년 12월
- 내용: 도로개설
- 위치: 관평동 654-1번지 일원
- 문의: 건설과 토목팀 ☎042-611-2898

신성동

탄동천 산책로 정비
- 기간: 1월 ~ 7월
- 내용: 산책로 정비, 수목식재 등
- 위치: 신성동 461~구성동 465번지
- 문의: 재난안전과 하천팀 ☎042-611-2481

전민동

민마루근린공원 토양정화
- 기간: 4월 ~ 6월(예정)
- 내용: 공원 내 토양정화
- 위치: 민마루근린공원(문지동 673)
- 문의: 공원과 공원관리팀 ☎042-611-2803

구즉동

금탄경로당 근린리모델링 공사
- 기간: 4월 ~ 7월
- 내용: 단열, 창호 및 냉·난방기 교체, 태양광 설치 등
- 위치: 금탄동 165-5(1~2층)
- 문의: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관리팀 ☎042-611-2398

관평동

시설녹지 맨발걷기길 조성
- 기간: 1월 ~ 7월
- 내용: 맨발걷기길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 위치: 관평동 테크노밸리 2단지 완충녹지 ~ 장배기근린공원
- 문의: 공원과 공원정책팀 ☎042-611-2717

주요하천 환경정비
- 기간: 1월 ~ 12월
- 내용: 계절꽃 파종
- 위치: 관평동 1289 일원
- 문의: 재난안전과 하천팀 ☎042-611-2481

정리 / **이훈희**



온쉼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꿈꾸며

온쉼공동체는 학하동 지역에서 '함께살기'를 시작하면서, 공동체의 삶을 자신들 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지역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 단순히 마을 안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돕고 돌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뜻은 공동체의 이름에도 담겨 있다. '온쉼'은 '온전한 쉼'을 의미하며, 멀리 떠나야만 얻을 수 있는 쉼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쉼을 뜻한다. 온쉼공동체는 일상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삶 안에서 진정한 쉼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현재 온쉼공동체는 학하지구에서 두 곳의 함께살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업을 기반으로 반찬 만들기, 포카치오 만들기, 눈 건강 교육,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미술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온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앞으로는 공동육아와 돌봄으로까지 활동을 확장해 마을 안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기반도 만들어가고자 한다.



마을 안에 생겨난 변화와 앞으로의 바람

온쉼공동체의 활동은 마을 안에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마을에서 서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까워진 이웃들도 생겨났다. 마을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일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 모임인 '담쟁이'와 베이커리 활동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처럼, 마을 안에서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도 생겨나고 있다. 또한 마을 활동가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일정을 나누고 함께할 일을 도모하게 된 점, 장애인 센터와 노인정,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도움의 방법을 찾아가게 된 점도 의미 있는 변화로 꼽힌다.

이러한 경험은 결국 마을공동체가 지속가능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람과 재정의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고민으로 이어졌고, 온쉼공동체는 올해 마을기업 전환도 함께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먹거리 문화와 돌봄의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가고자 한다. 온쉼공동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진정한 쉼은 잠시 멈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와 경쟁을 내려놓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온쉼공동체는 오늘도 그 가치를 마을 안에서 차근차근 실천해가고 있다.



‘유성이 합창단’에서 보람을 찾다

강성완 (유성이합창단 지휘)

유성에 와서 내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든 것이 유성문화원에서 하는 합창 재능기부일자리 사업이다. 우연한 기회에 유성문화원에서 노인 일자리 중에서 재능기부일자리 합창단을 모집한다고 하여 신청하였는데 합격하여 나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중학생 때 빈소년합창단이 나오는 “들장미” 영화를 보고서 어린이 합창단 지휘가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시니어들로 구성된 유성이 합창단을 지휘하면서 후반전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가고 있다.

초창기에는 “노병은 죽지 않는다”라는 뜻의 VND 합창단이 지금은 “유성이 합창단”이 되었다. 그동안 주간보호센터, 경로대학, 각종 축제장으로 다니면서 합창으로 재능을 마음껏 봉사하는 일자리가 되었는데, 한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합창을 대면으로 할 수 없어 잠시 휴업이 되어있을 때는 아무 일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체험했던 시간도 있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금지어는 요양원과 치매라는 단어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내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셨다는 것이 잘 모시지 못해서 죄인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인 것 같다. 센터에 들어서면 환한 모습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손을 내밀 듯이 반갑게 맞이할 때마다 안아주고 싶어도 똑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 환자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어서 아쉽지만, 고개로 인사만 한다. 어떤 곳에는 의식이 없는 것 같이 의자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함께 흘러간 동요나 가곡을 부르면 마스크를 쓴 입술이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도 합창단원이 되셔서 우리 합창단원과 함께 고향의 봄을 합창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가족들에게 나도 합창단원이다 자랑하세요”고 하면 얼굴색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희망의 나라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곳은 육신을 치료하는 곳이지만, 우리 합창단을 통해서 마음을 위로받고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고 하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끼며,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느낄 수 있다.

우리 합창단은 유성구에만 있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재능기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서 합창으로 봉사하는 노인 일자리이다. 이 사업은 우리 합창 단원들도 치유 받는 좋은 사업이다. 노래를 배우면서 지난날의 추억을 되살려 보면 나도 모르게 치유 받는 느낌이 든다. 환우들을 찾아가서 공연을 할 때면 보람도 느끼고 내가 건강하게 있다는 것에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한 달이 지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보면서 행복을 느낀다. 비록 작은 돈이지만 은퇴 후에 큰 보람을 느낀다.



나는 왜 자꾸 긴장할까? 늘 맹수에게 쫓기는 사람



전유전 만년설 한의원 원장
('노화를 늦추는 뇌 건강법' 저자)

긴장하면 손에 땀이 난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니까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손에 땀이 난다면? 글씨를 쓸 때, 작업을 할 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조금이라도 덥다고 느껴질 때, 심지어 평상시에.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어도 우리 몸의 유전자는 원시시대 그대로다. 손에 땀이 날 만큼의 긴장은 원시시대 기준으로 맹수가 나타난 상황, 즉 목숨을 걸고 도망치거나 숨죽여 숨어있어야 하는 순간에만 일어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몸은 지금도 평범한 일상의 자극을 그 수준의 생존 위협으로 해석한다. 이것이 '과긴장 증후군'이다.
과긴장 증후군은 손에 땀이 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손발이 유달리 차가워지는 것, 눈을 너무 자주 깜박이는 것, 관절에서 뚝뚝 소리를 내는 것, 근육이 갑자기 움찔하는 것, 어깨와 목이 항상 뻣뻣하게 굳어 있는 것, 쉽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 사소한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까지. 이 모든 증상이 과긴장 증후군이다.

과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공황, 우울, 강박, 중독이 온다

과긴장 상태는 바꿔 말하면 코르티솔이 항진된 상태다. 부신이 쉴 틈 없이 코르티솔을 쏟아내며 몸을 끊임없이 비상 태세로 몰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 빠르게 악화된다. 카페인은 부신을 직접 자극해 코르티솔 분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커피를 마실수록 과긴장 상태로 더 몰아넣는 셈이다.
이렇게 혹사당한 부신은 결국 코르티솔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고갈 상태에 이르고, 그때 공황장애가 찾아온다. 코르티솔의 만성 항진은 세로토닌 생성도 저하시킨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감정이 가라앉는 우울증으로 이어진다. 중독과 강박장애 역시 마찬가지다. 늘 불편하고 불안정한 내면을 잊기 위해 무언가에 의존하게 되거나, 불안을 통제하려는 반복 행동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겉으로는 저마다 다른 병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모두 같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의 이야기다. 어려서부터 긴장을 잘 하는 편이었고, 코막힘이 잦았으며 잠도 늘 깊이 자지 못했다. 부비동 기능이 좋지 않으니 코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면 상태가 좋을 수가 없었다. 직장을 갖게 된 후에는 지나친 긴장 탓에 실수가 잦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시작한 운동이 어느 순간 강박으로 변했다. 불면증도 찾아왔다. 처음에는 몇 주간 고생하다 회복되곤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몇 달이 지나도록 나아지지 않았고, 급기야 '오늘 밤도 못 자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 불안장애까지 겹쳐서 한의원 문을 두드렸다. 코막힘, 수면의 질 저하, 긴장, 강박, 불면증, 불안장애. 하나의 뿌리에서 자란 것들이었다.
과긴장은 의지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호르몬과 자율신경의 문제다. 커피를 끊거나 줄이고, 항상 코로만 숨 쉬고, 잘 때는 수면테이프로 입호흡을 막는 것. 그 작은 습관들이 과긴장의 덫에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칼럼





아이가 "아프다"고 말할 때 부모가 해야 할 말
— 아이의 마음을 믿어주는 힘

박경은 가득이심리상담센터 원장(심리학 박사)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고 말할 때이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순간 여러 생각이 스친다. 정말 아픈 것인지, 학교에 가기 싫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단순히 꾀병은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괜찮아, 다들 그 정도는 참고 학교 가는 거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는 "또 그러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한다.하지만 아이의 말 속에는 단순히 '몸의 통증'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때로는 실제로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학교에서의 긴장이나 걱정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저 부모의 관심이나 위로가 필요한 순간일 수도 있다. 아이들이 정서적인 불안을 느낄 때 그것이 신체 증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아직 감정을 충분히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마음의 불편함을 몸의 아픔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단순히 사실 여부로만 판단하기보다,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 부모가 가장 먼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의 말을 믿어주는 태도이다. 믿어준다는 것은 무조건 모든 요구를 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가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존중해 준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어디가 아프니?", "많이 불편했구나"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낀다. 아이의 감정이 존중받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지 못한 아이는 점차 마음을 표현하지 않게 되거나, 반대로 더 큰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기도 한다. 반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이 있다고 느끼는 아이는 점차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물론 부모에게도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 매번 아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아이의 습관, 거짓말의 원천이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아이의 말을 무조건 거절하거나 의심하기보다 먼저 공감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태도이다. 예컨대, "배가 아프구나. 잠깐 쉬어볼까?"라고 말한 뒤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고, 조금 나아지면 "그래도 오늘은 학교에 가보자. 엄마(아빠)가 응원할게"라고 말해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다. 아이는 완벽한 부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부모를 필요로 한다. 또한 부모의 따뜻한 포옹과 충분히 안아주는 경험은 아이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타인에 대한 신뢰를 배우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우리는 종종 아이를 단단하게 키우기 위해 너무 빨리 강해지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는 경험이 필요하다. 아이가 "아프다"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몸의 신호뿐 아니라 마음의 신호도 함께 담겨 있을지 모른다. 그 작은 신호를 부모가 한 번 더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다면,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줄 것이다. 어쩌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말해주는 한마디일지도 모른다.

공동주택 주거 환경 조성 신청하세요

노후시설 개선·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7개 분야

구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지원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지원 △전자투표서비스 지원 등 7개 분야이다.

신청 단지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한 뒤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의 필요성·시급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3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유성구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shmovehs@korea.kr)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공동주택과(☎042-611-2537)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 디지털·AI 실무 역량 강화한다

상·하반기 각 15주 과정 '청년DX 올라운드 스쿨' 운영

구는 청년의 디지털·AI(인공지능)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DX(디지털 전환) 올라운드 스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3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AI 기반 프로젝트 학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상하반기 각 15주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격주로 병행해 실습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참여 청년들은 디지털·AI 트렌드 이해를 바탕으로 팀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생성형 AI 등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콘텐츠 기획·제작과 영상·홍보물 완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구는 앞으로도 청년이 전문성을 키워 취업·창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홀몸 어르신 건강 식생활 챙긴다

영양 교육·요리 실습 '온기밥상' 지원

구는 3월부터 10월까지 진잠건강나눔센터에서 홀몸 어르신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영양 프로그램 '온기밥상'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영양 불균형이 높은 독거노인 72명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식단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의 지도로 △저지방·저나트륨·저칼로리 '조리법 교육' △영양 균형 고려 '요리 실습' △만성질환 예방 '영양 이론 교육' 등이 진행되며, 상반기(3~4월)와 하반기(9~10월)로 나누어 6회씩 운영된다. 또한 실습을 통해 직접 만든 음식을 개인별로 포장해 가정에서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단체 활동을 통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골목형상점가 14곳 신규 지정 모두 45곳 운영

소비 촉진·지역경제 활력 기대

구는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지정되지 않았던 전민동, 문지동 등을 포함한 14개 구역을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구는 지난해 20개의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 14곳을 추가 지정하면서 대전자치구 중 최다인 45개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특히 봄 행락철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지정을 완료 했으며, 골목형상점가 인지도 제고를 위해 45개 상점가 내 7,300여 점포를 대상으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전용 스티커' 제작·배포 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상반기 14곳에 이어 하반기에는 수통골, 죽동, 신성동, 둔곡동 등 신규 골목형상점가 후보지 19곳을 대상으로 홍보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유성구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2,830여 개소로, 이번에 추가 지정된 상점가를 중심으로 1,000개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전민평생학습센터 상담실 상시 운영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상담 제공

구는 수강생 모집 기간에만 운영하던 전민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상담실을 3월 25일부터 상시 운영한다. 이번 상시 운영은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생학습상담실은 프로그램 신청 방법 안내,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평생학습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이용 상담을 지원하며, 이용 활성화와 모니터링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이를 위해 전민평생학습센터는 지난 3월 20일 사전 교육을 통해 전문 자원봉사자 21명을 선발했으며, 선발된 자원봉사자에게는 평생학습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 강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실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문의 : ☎ 042-611-6553



정리 / 임재만

유성구 공공도서관 수·금요일 '두배로데이' 운영

유성구 공공도서관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두배로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두배로데이는 도서 대출 권수를 기존보다 2배로 확대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수요일에만 운영됐지만, 올해부터는 금요일까지 확대해 수요일과 금요일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최대 10권까지 도서를 대출할 수 있으며, 그 외 요일에는 기존과 같이 최대 5권까지 대출 가능하다.

진잠도서관

최민석 작가와의 만남

진잠도서관은 4월 11일 진잠도서관 시청각실에서 2026년 상반기 공감인문학 '최민석 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소설가 최민석의 읽고 쓰는 삶'을 주제로, 작가가 읽고 쓰고 공부해온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최 작가는 자신이 원하는 글을 쓰기 위해 어떤 책을 읽고, 어떻게 공부해왔는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낼 계획이다.

최민석 작가는 제36회 오늘의 작가상과 제13회 창비신인소설상을 수상했으며, 스페인 마드리드와 독일 베를린에서 방문작가로 활동한 바 있다.

유성구 평생학습원

SNS 채널 운영

유성구평생학습원이 교육정보와 문화행사 소식을 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SNS 채널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 인스타그램은 기존 도서관 계정과 통합해 운영하며, 페이스북과 네이버밴드는 새롭게 개설해 소통 창구를 넓혔다. 카카오톡 채널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각 채널을 통해 도서관 행사와 평생학습 프로그램 소식을 쉽고 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인스타그램 ID : yuseong_lifelib
페이스북 ID: yuseonglifelib
네이버밴드: https://band.us/@yuseonglifelib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LNxibT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 모집기간: 2026. 4. 1.~4. 17.
- 모집대상: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등 88명
- 모집자격: 만 18세 이상으로 컴퓨터 활용 및 현장조사 가능한 자
- 채용기간: 2026. 6. 1.~7. 31.(모집대상별 상이)
- 조사기간: 2026. 6. 12.~7. 22.(온라인조사 6. 1.~6. 30.)
- 신청방법: 경제총조사 홈페이지(www.ecensus.go.kr) 및 이메일(majjony@korea.kr)
- 문의전화: 042-611-2034 ※ 자세한 내용은 유성구 홈페이지 참고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접종

구는 3월 3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250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주민등록상 유성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포진 싱그릭스 2회 접종 완료자와 접종 금기자는 제외된다.

접종은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예방접종 백신은 사백신인 싱그릭스주로, 총 2회 접종하며 접종 간격은 2개월에서 6개월이다. 접종 희망자는 신분증과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모두 지참해야 한다.

접종은 유성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42-611-5050)로 문의하면 된다.

택시 할증 요금 인상

대전시 택시 요금 할증이 2026년 3월 16일 부터 인상됐다. 심야 시간대(00시~02시) 할증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23시부터 04시까지 적용되는 복합 할증과 대전시 외 지역 운행 시 할증률은 40%에서 50%로 오른다.



대전선사박물관 '텐석기 in 용호동' 전시 개최

대전선사박물관이 오는 5월 31일까지 2025 대전선사박물관 특별전 '뗀석기 in 용호동'을 열고 대전 용호동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를 통해 10만 년 전 구석기인의 삶과 문화를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슴베찌르개와 주먹도끼, 갈린 석기 등 주요 유물을 통해 용호동 구석기인의 뛰어난 석기 제작 기술과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에서 드물게 확인된 불땐자리와 석기제작터는 당시 생활문화와 제작 활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정리 / **이훈희**

재개발정비사업 기간에도 유성 5일장은 계속됩니다.

유성대로 730번길을 따라 열리는 유성 5일장(4일, 9일)은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정겨운 삶의 터전이다. 꼭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멀리서 찾아온 이들의 안부를 묻는 이곳은 유성 사람들의 따스한 마음이 모이는 '동네 사랑방'처럼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곳이다.

장날이 되면 길게 늘어선 좌판 위로 산지 직송 농산물부터 싱싱한 수산물, 정겨운 생활용품들이 골목을 가득 채우며 동네에 활기를 더한다. 코끝을 자극하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저렴하면서도 넉넉한 먹거리는 유성 5일장에서 만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다. '덤'으로 건네는 한 움큼과 오가는 수다 속에는 마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옛 장터만의 향수가 가득하다.

이렇게 주민과 삶의 함께해온 유성 5일장(장대B구역 일원)에서는 현재 재개발정비사업이 한창이다. 재개발로 동네 풍경은 바뀌어 가겠지만, 우리 곁을 지켜온 유성 5일장은 사업 기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과 방문객들이 유성 5일장에 들러 장터의 따뜻한 정과 삶의 활기를 함께 나누길 기대해 본다.

우리동네 골목상권, 착한가격업소를 아시나요?

착한가격 모범



다함께 더좋은 유성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4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생애 1회)



신청접수

2026.3.30(월) 09:00~
2026.5.29(금) 16:00

신청자 발표 2026.9.14 (월) 예정 추후 공지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서 지원

지원대상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전입신고 필수)

소득재산기준

소득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선정인원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중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9월)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과거 국토부가 시행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을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신청일:'24.2월~25.2월) 수혜자는 2차 사업 지원 종료 시(2027년 12월)까지 신청 불가

지원한도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성구 YUSEONG DISTRICT

YUSEONG
SPA CULTURE
FESTIVAL

2026 유성온천 문화축제



5. 8. (금) ~
5. 10. (일)
유림공원 일원

개막식
5. 8. (금) 저녁 6시
유림공원 동편광장

유성문화원
대전광역시 유성구